

수입 전기차시장 ‘테슬라·BYD’ 질주 獨 브랜드, 기술력·프리미엄 승부수

1~8월 신규등록 82% ‘테슬라·BYD’
가격 경쟁력 기반 높은 상품성 주요
독일 업체들 주행거리 등 성능 강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BYD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가격과 상품성을 앞세운 두 업체에 맞서 독일 브랜드가 기술력과 프리미엄 가치로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1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 순수전기차는 11만4401대다. 이 가운데 테슬라와 BYD는 9만3742대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8월에도 테슬라 모델 Y가 전체 트림 합산 9638대 등록되며 판매를 이끌었다.

가격 경쟁력은 두 업체의 강점이다. B YD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씨라이언7은 4490만원, 테슬라 모델Y 프리미엄 RWD는 4999만원부터 판매된다.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각각 398km와 400km다. 테슬라는 자체 수퍼차저망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BYD는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독일 업체들은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으로 맞서고 있다. BMW 신형 iX350x Drive는 7990만원부터로 씨라이언7보다 3500만원, 모델Y보다 2991만원 비싸다. 대신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사양에 따라 588~611km에 달한다. 800V 전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대 400kW 급속충전을 지원하며 제조사 기준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21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가격 격차를 좁히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CLA 200 일렉트릭 에센셜은 5290만원으로 모델Y보다 291만원 높다. CLA에는 800V 전기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최대 급속충전 출력은 CLA 200이 200

kW, CLA 250+가 320kW다. BMW가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을 내세운다면 벤츠는 5000만원대 신차를 투입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모습이다.

결국 독일 브랜드의 과제는 테슬라·BYD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주행성과 충전 기술, 브랜드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내연기관 시대와 달리 배터리와 충전,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구매 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테슬라와 BYD의 경쟁력은 품질이 뒷받침되는 가성비”라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대에도 기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광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오픈한 B2B 전용 AI홈 체험공간.

/LG전자

LG전자, 중동지역 ‘AI 홈’ B2B 사업 확대

B2B 전용 AI 홈 체험공간 오픈

LG전자가 빠르게 성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해 인공지능(AI)홈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에 나선다. 중동 지역 첫 B2B 전용 AI홈 체험공간을 열고 현지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에 통합 AI홈 솔루션을 제안한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브랜드샵에 B2B 고객을 위한 AI홈 체험공간을 공식 개관했다. 현지 프리미엄 주거시설을 본떠 실제 집처럼 꾸미고 맞춤형 빌트인 가전과 가구를 배치했다.

체험공간에서는 AI홈 허브 ‘싱큐온(T hinQ ON)’을 통해 집 안의 기기를 음성

으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가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호미(Homey)’와 연동해 다른 브랜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

B2B 고객을 겨냥해 적용 범위는 건물 전체로 넓혔다. LG전자는 수나이어 일렉트릭, 아사아블로이 등과 협력해 건물의 설비와 에너지 사용을 통합 관리하고 보안까지 연계한 단기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와 호스피탈리티 사업자가 주요 고객이다.

LG전자는 늘어나는 개발 수요를 겨냥해 리야드 체험공간을 B2B 거점으로 활용한다. 연내 제다와 담맘 등 주요 도시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그룹, 동남권 ‘K-GX’ 거점 만든다

(녹색전환)

‘20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가
하이렉스 등 탈탄소 기술·제품 소개

포스코그룹이 수소환원제철을 중심으로 철강 생산부터 에너지·소재까지 아우르는 탈탄소 전환 구상을 제시한다. 그룹 역량을 결집해 동남권을 제조업 녹색전환(GX)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기후테크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탈탄소 세상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기후기술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다룬다.

올해로 6회째 참가하는 포스코그룹은 ‘POSCO, 탈탄소 철강으로 K-GX 생태계를 열다’를 주제로 포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이앤씨 4개사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포스코그룹 통합 전시관 조감도.

/포스코홀딩스

전시관은 탈탄소 혁신기술과 핵심소재, 무탄소에너지, K-GX 생태계 등 4개 존으로 구성된다.

탈탄소 혁신기술 존에서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공정 모형과 고로 기반 브릿지 기술, 전기로 등 철강 탈탄소 기술을 선보인다. 하이렉스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오는 2028년 포항에 연산 30만톤 규모의 하이렉스 실증설비를 준공하고 2030년까지

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존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퍼지컬 AI, 신모발리터, 전력 인프라 등 제조업의 디지털·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철강 제품을 소개한다.

무탄소에너지 존에서는 그룹의 에너지 사업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전시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해상 풍력·태양광 사업과 해외 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전·소형모듈 원전(SMR)·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EPC 역량을 선보인다.

K-GX 생태계 존에서는 동남권 일대를 하이렉스 실증설비와 연계한 탈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구상을 공개한다. 원전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전해 설비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환원제철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그룹은 하이렉스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설비를 기반으로 동남권 클러스터를 ‘K-GX 산업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태광산업, 트리스톤자산운용 경영진 고소

경영권·주주 가치 논쟁 분수령

태광산업이 2대 주주인 트리스톤자산운용과의 갈등을 법적 대응으로 확대했다. 트리스톤이 태광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그룹 경영협의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태광산업이 허위 주장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태광산업은 14일 황성택·이성원 트리스톤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트리스톤이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 전원에게 보낸 공개 주주서한의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통해 회사와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태광산업 측 주장이다.

앞서 트리스톤은 공개서한에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유령과도 같은 기구’로 규정하며 태광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격과 설치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협의회가

이사회 밖에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트리스톤의 주장이 과거와 현재의 경영 체계를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경영협의회’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지원협의회 역시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의기구일 뿐 개별 계열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주주권원 논쟁을 넘어 태광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독립성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트리스톤이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고소가 양측 간 장기적인 경영권·주주 가치 논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화학, 선단 반도체 세정 소재 시장 공략

中 장화웨이와 사업협력 MOU

LG화학이 중국 정밀화학 소재기업 장화웨이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선단반도체용 초고순도 세정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장화웨이와 반도체용 초고순도 이소프로필알코올(IPA)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화웨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고순도 화학소재를 생산·정제해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LG화학은 고순도·고품질 C3-IPA를 공급하고 장화웨이는 이를 반

도체 세정용 HP-IPA로 정제한다. 양사는 원료 생산과 정제 기술을 연계해 중국 현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반도체와 HBM 등 선단 반도체 고객사 공급을 추진한다.

HP-IPA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상업화에도 협력한다. 이를 위해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전무)은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원료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삼성전자, 차세대 EHS 히트펌프 기술 선포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참가

삼성전자가 고효율 차세대 EHS 히트펌프 기술을 선보이며 주거용 냉난방 전기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냉난방과 온수를 한 대로 해결하는 제품부터 혹은 난방 성능을 높인 제품까지 앞세워 히트펌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참가해 고효율 히트펌프 방식의 ‘EHS 올인원’과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혁신과 그린수소 협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EHS 히트펌프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솔루션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보일러보다 투입 에너지 대비 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EHS 올인원’은 실외기 한 대로 냉방과 난방, 급탕을 동시에 제공한다.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 생산에 재활용하는 열 회수 기능도 적용했다. 냉매는 기존 R410A보다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약 68% 낮은 R32를 사용했다.

‘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35℃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능계수(SCOP) 4.9를 기록해 소비전력 대비 약 5배의 난방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고효율 냉매 압축 기술을 적용해 영하 15℃에서도 최대 70℃의 고온수를 공급하고 영하 25℃에서도 난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남영 기자